

2024년도 금융감독원 회계심사·감리업무 운영계획

— 금융감독원, 2024. 4

◆ 금융감독원은 회계정보의 투명성·신뢰성을 제고하고 신뢰받는 자본시장 확립을 위해 연간 회계심사·감리업무 기본방향과 실시계획을 마련*하였음

* 12월말 결산 상장법인 등의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이 4월 1일로 도래함에 따라 회계감독 방향에 대한 시장의 이해 제고를 위해 「2024년 회계심사·감리업무 운영계획」을 발표

✓ 2024년도 회계심사·감리업무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음

① 감리업무의 투명성 강화를 통한 대외 신뢰 제고

- (절차 명확화) 심사·감리과정의 절차를 일관되고 명확하게 정비
- (심의기능 강화) 중요사건에 대해 사전 심의 회의 신설
- (방어권 보장) 위반사항 조기 정정시 incentive, 조치예정사항 대면 설명

② 중대사건 역량 집중을 통한 회계질서 확립

- (감시 강화) 고의적 위반 가능성 높은 기업, 시장영향력 큰 기업 감시 집중
- (효율성 제고) 테마심사를 확대하고 핵심사항 위주로 신속히 업무 수행
- (시스템·디지털화) 디지털 감리 수행을 위한 분석시스템 등 마련

③ 회계업계 규율 확립을 통한 감사품질 제고

- (등록요건 감독강화) 통합관리 등 중점 점검 및 부적격 회계법인 엄정 조치
- (맞춤형 감리) Big4 사전 감리기간 등 회계법인 특성에 맞는 차등 감리
- (감사역량 제고) 회계법인 디지털 감사기술 도입 지원 등 감사역량 제고 유도

✓ 회계심사·감리업무 기본방향에 따라 상장사 등에 대해 재무제표 심사감리 160사, 14개 회계법인 감사인 감리 실시 예정

< 기 본 방 향 >

◆ 회계정보의 투명성 · 신뢰성 제고로 신뢰받는 자본시장 확립

Robust (탄탄한)	감리 절차 명확화, 사전 심의기능 강화 등 제도 정비를 통한 탄탄한 회계 감리체계 확립
Vigilant (빈틈없는)	선택과 집중을 통해 중대 회계리스크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빈틈없는 심사·감리 실시
Strict (엄정한)	감사품질 제고를 위한 회계업계 체질개선 등 엄정한 규율 확립

1 감리업무의 투명성 강화를 통한 대외 신뢰 제고

- ㉠ (절차 명확화) 모든 심사 · 감리과정의 절차들이 명확한 근거하에 투명하고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규정* · 매뉴얼 정비
 - * 현장감리 등 실무적인 감리절차를 시행세칙 등에 명확화
 - 구두를 통한 자료제출 요청은 엄격히 제한(3일 이내 이메일 등 보완)하고, 변호사 등 조력자 활동 범위에 대한 이견 등은 문서화
- ㉡ (심의기능 강화) 중요사건*에 대해서는 사전 심의 회의를 신설하고, 부서내 심사 전담자 및 의무 심사기간(1주일) 운영
 - * 조치수준 “고의”&“과징금 20억원 이상” 안건 대상(필요시 산업전문가 포함)
- ㉢ (방어권 보장) 감리 착수이후 회사가 재무제표 정정 등 위반을 인정하고 협조하는 경우 Incentive 부여방안 마련
 - 사전통지서를 보다 충실히 작성하고, 사전통지 이후 피조치자 요청할 경우 대면하여 절차 및 조치사유 등을 안내

2 중대사건 역량 집중을 통한 회계질서 확립

- ㉠ (감시 강화) 고의적 회계부정 가능성이 높은 기업* 및 시장영향력 큰 기업 선정 비중을 확대하고 자료수집을 위한 현장감리 적극 실시
 - * 회계부정 제보, 언론보도, 내부회계관리제도 의견 부적정 등

- ㉞ (효율성 제고) 테마심사* 회사수를 확대하여 위험요소 및 특이사항 등 핵심사항 위주로 점검하고 신속히 종결

* ('24년 주제) ① 매출채권 손실충당금, ② CB 콜옵션, ③ 장기공사수익, ④ 우발부채 공시

- ㉟ (시스템·디지털화) 내부 심사·감리 진행상황을 시스템을 통해 관리*하고, 디지털감리를 위한 소프트웨어 및 분석시스템 마련**

* 심사·감리 대상선정후 조속히 착수, 심사 착수시 중요 단계별 목표처리기한 설정 등

** 감리자료에 대한 분석·검색 기능 강화, 회사별 회계자료 형식 차이 조정 시스템 개발 등

3 회계업계 규율 확립을 통한 감사품질 제고

- ㉠ (등록요건 감독강화) 상장법인 감사인에 대해 인사, 자금, 회계 등의 실질적 통합관리 등 등록요건 유지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,

○ 부적격 회계법인에 대한 엄정 조치 등을 통해 시장 선순환을 유도

- ㉡ (맞춤형 감리) 시장 영향력이 큰 Big4에 대해서는 자료요구·분석을 위한 사전 감리기간*을 별도 부여하는 등 감리프로세스 개선

* 본 감리前 현장 1주+자료분석 2주(총 3주) 기간을 통해 충실한 감리 준비

○ 품질관리수준 평가결과 등을 감안하여 미흡한 회계법인에 대한 감리주기 단축*

* 품질관리수준이 낮은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기존 3년 주기에서 2년으로 단축

- ㉢ (감사역량 제고) 감사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품질관리수준 평가지표 개선을 추진하고, 회계법인의 디지털 감사기술 도입을 지원*

* 금감원·회계업계·기업계·학계 등으로 구성된 「디지털 감사지원 TF」 운영('23.11월~)

II 심사·감리 실시대상

- ◆ 금융감독원은 2024년에 상장법인 등 160사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·감리 및 회계법인 14사에 대한 감사인 감리를 실시할 예정

* 인력 현황, 기타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실시계획 변경 가능

가. 재무제표 심사·감리

- 금년도 중점 추진 과제, 감리운영인력, 과거 업무수행결과, 심사업무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

○ 160사*에 대하여 재무제표 심사·감리를 실시할 계획

* 상장법인 및 비상장인 금융회사·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으로, 회계기준 위반 건수 및 위반



- 의 규모·성격·영향 등에 따라 변동 가능
- 경미한 위반행위는 금감원장 경조치*(주의, 경고)로 신속히 종결하고, 경제적·사회적 중요성이 높은 사건에 역량을 집중
 - *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공시할 것을 권고
- 사전예고된 회계이슈*, 기타 위험요소**, 장기 미감리(예, 10년이상), 상장예정 등 사유를 표본심사 대상으로 선정하고
 - * ①매출채권 손실충당금, ②전환사채(CB) 콜옵션, ③장기공사수익, ④우발부채 공시('23.6.13. 보도자료 「2024년도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·업종 사전예고」)
 - ** 분식위험지표가 높은 회사, 횡령·배임이 발생한 회사 등
- 회계오류수정*, 회계부정 제보 및 기타 감독업무 중 위반혐의가 발견된 회사 등을 혐의심사 대상으로 선정 예정
 - * 자진 오류수정의 경우에는 중요성 4배 이상 금액 수정 또는 최근 5년간 3회 이상 수정(「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」 제23조)

나. 감사인 감리*

- * 외감규정 제23조 제6항에 따라 품질관리감리와 개별감사보고서 감리 및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 유지여부 감리를 포괄하는 감리를 의미
- 14개 회계법인(가군 2사, 나군 4사, 다군 7사, 라군 1사)에 대한 감사인 감리실시
 - 3년 기준 감리주기가 도래한 9사를 우선 선정 후, 시장영향력과 품질관리수준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5사를 추가 선정
 - 감리대상 선정 회계법인에 감리실시 일정* 등을 사전 통보 예정
 - * 회계법인 소속 군(群) 등을 감안하여 3~7주간 실시하되, 감리인력 현황, 품질관리수준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조정
- 감사인 감리시 이전 감리과정에서 파악된 회계법인의 취약부분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*할 예정
 - * (중점 점검항목) ① 인사·자금·회계 등에 대한 실질적인 통합관리체계 운영 여부
 - ② 감사품질에 대응하는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 구축 여부
 - ③ 비감사용역 제공 등 관련 독립성 준수를 위한 정책의 효과적 구축 및 운영 여부 ④ 감사정보 유출차단 정책·모니터링 등의 적정성
 - ⑤ 대표이사 등에 대한 견제장치와 같은 지배구조 운영의 실효성
- 美 PCAOB(상장회사 회계감독위원회)와 국내 회계법인에 대한 공동검사*시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
 - * '07.3월 美 PCAOB와 공동검사 양해각서 체결 이후 '23.12월까지 5개 회계법인에 대해 총 24회 공동검사 실시